

道通眞境 思想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머리말	(2) 太陽의 都邑
II. 지금까지 人類가 追求하여온 理想人과 理想社會	(3) 유토피아
III. 理想人의 여러 형태	3. 韓國의 理想人과 理想社會
IV. 理想社會의 여러 형태	(1) 理想人으로서의 弘益人間
1. 東洋의 理想社會像	(2) 理想社會로서의 理化世界
(1) 大同社會	V. 大巡思想에서의 理想人(道通人)
(2) 小國寡民社會	-宇宙的 次元의 人間完成-
(3) 桃花源境	VI. 大巡思想에서의 理想社會(眞境社會)
(4) 龍華世界	-宇宙的 次元의 社會構成-
2. 西洋의 理想社會	VII. 道通眞境思想의 現代的 意義
(1) 理想國	1. 人間改造의 새로운 方途
	2. 社會改革의 새로운 方向

I. 머리말

대순진리회는 도통진경사상을 종지의 하나로 삼고 있다. 대순사상논총 제 1집에서 정대진 대진대학교 이사장은 「대순사상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도통진경은 대순사상이 목적하는 바의 궁극적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고 「이는 개인의 이상임과 동시에 우주전체의 이상향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인류의 이상사회는 단지 물질적 측면의 고도한 성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장을 이룩하는 것만으로만 달성될 수 없으며 이와 아울러 인간정신이 고도로 성숙된 경지를 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순사상에 나타난 도통진경으로서의 후천세계는 인간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에서의 이상적 경지를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정신의 성숙이 또한 고도의 경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도 인간의 생활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변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가이 지상선경(地上仙境)이라고 할수 있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체가 되는 전우주적 차원의 이상」이라고 했다.

대순진리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태극도에서 발행한 도학원론(道學原論)에서는 도통진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도통이라는 것은 진리 곧 도(道)를 통(通)한다는 말인데 도를 통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각(覺)과 같은 것이나 깨달음 즉각은 인간의 지혜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사상(事象)인데 도통은 깨달음보다 한층 높은 차원에 속하는 객관적 사상(事象)이라고 했다. 즉 「통」이란 우주의 대도가 환하게 깨달아 알게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도의 장벽이 없어져 하나가 되게 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경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도를 통한 사람의 마음진리를 말하지만 일개인의 심성함양으로 이루는 도통만이 아니라 삼계 우주 전체의 도통인 동시에 삼계대공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통진경의 이론을 도표적으로 체계화하면

$$\text{도통} = \left[\begin{array}{c} \text{개인적 구제} \\ \text{집단적 구제} \end{array} \right] = \text{진경} = \left[\begin{array}{c} \text{개인의 심령세계} \\ \text{도인의 집단도장} \\ \text{세계의 선경화} \\ \text{삼계 우주의 진경} \end{array} \right]$$

으로 풀이되며 그 원인은 도통 결과는 진경이라는 방법론과 목적론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도통진경에 대해서 증산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먼저 도통에 관해서 보자. 전경 교운 1장 33절에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

라사대 각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종이니 이제 만일 한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
 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였고 전경 교운 1장 34절에는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는 72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5백명을 통케하였으나 도통
 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
 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7일이요 중재는 14일이요 하재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게되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
 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
 느니라. 하였고 전경 교운 1장 40절에는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
 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나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하였음
 으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
 하지 못하였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
 으리라. 하였고 전경 교운 1장 41절에는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
 통신들이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도느니라. 그
 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하였고 전경 교운 1장 47절
 에는 「류찬경은 도통이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받고 그는 큰 소리로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를 읽고 상제의 앞에서 물러나왔도다. 하였고 전경 권지
 1장 11절에는 「나는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종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
 화중에 묻힌 무명의 악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싸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히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
 江山) 명산(名山)이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다. 동학신자간에 대
 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 하였고 전경 예시 45절에는 「상제께

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왕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게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大覺)이라」고 하였다. 또 진경에 관해서는 진경에 해당되는 후천선경에 관해 전경 공사 1장 3절에 「상제께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하였고 전경 권지 1장 21절에는 「상제께서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고 종도들에게 기회가 있을때 마 말씀하셨도다. 그 때가 더딘것에 종도들이 한탄하면서 하루 바삐 상제께서 개벽을 이룩하시기만 기다리는 도다」라고 하였고 전경 권지 2장 37에는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저 하였으나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이 죽은 후에 원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 하였고 전경 예시 6절에는 「선천의도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 하였고 전경 예시 9절에는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하였고 전경 예시 17절에는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착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廷)에 참여 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하였고 전경 예시 73절에는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 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이 닿은 대로 새기틀이 열리리라」 하였고 전경 예시 80절에는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하였고 전경 예시 81절에는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의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잠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하였다.

증산계서는 선천에서는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여 좀처럼 도통하기가 어려우나 후천에서는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여 누구든지 닦은 바에 따라 도통할 수 있으며 도통이 되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과 사회문명이 발달되어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평화스러운 후천선경 또는 진경이 실현되다는 것이다.

Ⅱ.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하여온 이상인과 이상사회

인류는 지금까지 이상인과 이상사회를 추구하여 왔다. 이상인은 주로 종교가들이 추구하였고 이상사회는 주로 사회사상가들이 추구하여 왔다. 유교

나 기독교에서는 이상인을 성인(聖人)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이상인을 신선(神仙)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상인을 깨달은 사람(覺者)이라고 하고 또 회교에서는 모스람(mosram) 즉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 유교에서는 이상사회를 대동(大同)사회를 들고 도교에서는 선경(仙境)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극락(極樂)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천당(天堂)이라 하며 회교에서는 평화경(平和境)이라고 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지인용(智仁勇)을 갖춘 중용(中庸)인을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신망애(信望愛)를 갖춘 사람을 말하고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불로장생하여 천상천하를 자유로히 왕래하는 사람이며 불교에서의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욕심을 버리고 불성(佛性)을 자각한 사람이요 회교에서 말하는 모스람은 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다.

유교는 인(仁)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인자함과 더불어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 그것이 과부족없이 잘 조화되어 중용을 이루어야만 이상인이라고 한다. 또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가장 중요시 하지만 신앙과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고 있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초현실적(超現實的) 인간으로 세속(世俗)을 떠나서 존재한다. 속인은 현실 속에 산다하여 산 밑에 있는 골(谷) 사람(谷人=俗)이라고 하고 신선은 현실을 떠나 산에 사는 산사람(山人=仙)이라고 하였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사회의 대동사회는 이상인들이 사는 이상사회로 어디까지나 지상의 사회다.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에서의 이상사회인 극락이나 천당은 현세에 존재하기 보다는 현세를 떠난 내세에 존재하는 비중이 크다. 도교에서 말하는 선경은 유교보다는 현세성이 약하고 불교나 기독교보다는 내세성이 약하여 현세와 내세의 양쪽에 걸쳐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회교의 평화경도 도교와 비슷하다. 이교(異教)의 투쟁경(鬪爭境)을 극복한 것이 평화경인데 이 평화경은 생전과 사후에 연속된다.

이상인이 있어야 이상사회가 되느냐 또는 이상사회가 이루어져야 이상인이 존재할 수있느냐 라는 문제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종교에서는 이상인이 되면 이상사회는 저절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인이 되는 수련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사회사상가들은 먼저 이상사회가 건설되어야만 이상인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인과 이상사회」 즉 「개인과 사회」의 문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제이다. 인간은 본래 개인으로 존재하되 반드시 집단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개인적인 면과 집단적인 면의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풍토에 따라서 생활양식이 결정되므로 그러한 생활양식이 계속되므로써 사람들은 그 생활양식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반대되는 생활양식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세계의 자연환경은 계절풍(季節風)적 풍토와 해양성(海洋性)적 풍토와 대륙성(大陸性)적 풍토로 대별할 수 있고 이에따라 동방의 농경사회와 서방의 상업사회와 중방의 유목사회가 이루어진다. 서방의 상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자연의 재해에 공통대처하기 위해 단결력이 필요한 중방의 유목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발달하고 동방의 농경사회서는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협동주의가 발달되었다.

서방의 개인주의는 그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이루어 세계가 거의 이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고 중방의 집단주의는 그 정치형태인 사회주의가 일시 세계에 팽창했으나 그 사회주의의 총본산인 소련이 붕괴되므로써 사회주의세력은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의 승리로 판정이 난 것으로 되어있다. 미국의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sis Fukuyama)가 「역사의 종말」에서 세계는 이제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정착되므로써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다시말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경쟁에서 개인주의가 승리하여 세계는 이제 다시 체제를 위한 싸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싸움이 끝난후에도 세계에 평화는 오지 않았다. 미국의 「사뮤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문화의 충돌」로 이 현상을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체제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보다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커서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서구의 기독교문명이 동아의 유교문명이나 중동의 회교문명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리라고 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이분법(二分法)적 사고로 세계도 동양과 서양 인간문제도 개인과 집단으로만 이분적으로만 생각하여 개인 아니면 집단이라는 극한개념(極限概念)에 집착하여 사물의 진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인 양면적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개인적인 면에 치중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인 면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아무리 집단적인 면에 치중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면을 도저히 도외시킬 수 없다. 개인적인 면과 집단적인 면의 그 어느한쪽을 강조할 수는 있으나 개인과 집단이라는 유기적 연관관계속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다. 인간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존재한다. 이 관계적 인간(關係的 人間)이 인간의 실상이다. 인간의 결코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라는 집단이 절대적 존재로 먼저 있고 그 구성분자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만 환원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조화 속에서 파악하자는 것이 동방의 인륜(人倫)사상이다. 서방이 개인적인 인간(人間)에 집착하고 중방이 집단적인 인류(人類)에 집착하지만 동방에서는 바로 인륜에 치중한다.

서방인들은 동방의 농경적 가족주의를 집단주의라고 생각하고 중방의 유목적 집단주의와 달리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동방의 농경적 가족주의는 결코 집단주의가 아니다. 가족주의는 가족과 가족간의 협동관계를 강조하므로써 개인과 집단을 다같이 살리는 것이요 결코 가족 개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주의가 몰락했다고 하여 결코 개인주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직 세계적으로 검정되지는 않았지만 동방의 가족주의적 협동주의라는 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헤겔(Hegel)」은 동양에는 자유가 없고 「마르크스(Marx)」는 동양은 정체사회이며 「막스베버(Max Weber)」는 동양사회의 합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주의화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패전국 일본이 부흥하고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대만·싱가폴·홍콩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자 이것은 아시아에 유교라는 가치기준이 있어서 유교적 자본주의가 성

공했다고 했다. 그런데 1997년 이래 아이 엠 에프(IMF)파동이 나자 아세아의 유교는 가치가 없고 그 무가치한 유교때문에 아시아는 몰락하고 있다고 하고 아시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그 아시아적 가치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가 경제성장을 한 것은 아시아적 가치가 뒷받침했을 것이요 아시아의 경제가 몰락한 것은 결코 아시아적 가치때문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아시아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동양의 본래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불행의 근본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개인주의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만 착각한데서 아시아의 비극이 왔다. 개인이라는데에 너무 집착하여 집단을 보지 않은데서 화가 왔다. 유교식 집단주의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집단을 무시한데서 실패가 왔다. 개인의 영리에 너무 기울어져 기업집단·사회집단·민족집단을 무시한데서 화가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길은 오히려 개인의 영리를 넘어 집단의 성장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단에 치중하여 개인을 무시하면 그것도 안된다. 개인들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협동으로 개인과 집단의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나 집단의 평등은 오직 협동만으로 다 같이 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인과 이상사회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이상인과 이상사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인이 있다고 하여 그 사회가 곧 이상사회가 아니다. 이상인만 있다면 그 이상인들은 각각 자기완성에 만족하고 사회적 직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상사회라고 하여 그 사회에 이상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사회속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은 인간적 자각을 상실한다. 인간적 자각과 사회적 직분의 조화에서 이상인과 이상사회는 양립할 수 있다.

Ⅲ. 이상인의 여러 형태

오늘날 이상인은 진선미(眞善美)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사람의 심성은 감성과 지각과 의지로 이루어졌는데 지각이 발달되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眞僞)을 가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감정이 발달되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美醜)을 가려서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의지가 발달하면 착한 것과 악한 것(善惡)을 가려내어 착한 것을 행하게 된다.

지각이 발달된 사람은 진리(眞理)를 탐구하는 학자적 기질이 있고 감정이 발달된 사람은 미감(美感)을 창작하는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의지가 발달된 사람은 덕행(德行)을 실천하는 영웅적 기질이 있다.

인간의 심성은 대개 같다고 볼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진리를 탐구하고 예술을 창작하고 덕행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람의 심성은 각개인의 개성이 같지않아 어떤 사람은 지각은 발달되었지만 감성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와 반대로 지각은 발달되지 않았지만 감성은 발달된 사람이 있으며 지각도 감성도 발달되지 않았지만 의지만은 강한 사람이 있다. 개성을 중요시하면 지정의의 심성가운데 가장 발달된 부분을 잘 발휘하여 지성이 발달된 사람은 학자가 되고 감성이 발달된 사람은 예술가가 되고 의지가 발달된 사람은 영웅이 되면 되지만 이상적인 인간상으로는 그 어느 하나에 뛰어난 것보다 골고루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정의가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진선미를 고루 갖춘 사람을 이상인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그러한 인간을 완전한 인간 또는 전인(全人)이라고 하고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늘날 진선미라고 일컫는 인간적 가치는 유교에서 말하는 지인용(智仁勇)과 같다. 진선미는 「플라톤(Platon)」이래 「칸트(Kant)」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자들이 인간의 심성을 연구한 결과 진선미가 인간가치의 중추임을 알아냈지만 동양의 공자도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였다. 진선미에 있어서 진(眞)은 지(智)에 선(善)은 용(勇)에 미(美)는 인(仁)과 비슷하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굳은 의지인데 그 굳은 의지는 곧 용기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어진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진마음 즉 「인」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다.

공자는 철저하게 지인용의 겸비를 주장하여 그 어느것도 지나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중용상태를 이룬 사람이라야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보아 공자는 인간성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 같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인간의 심성을 이성(理性)과 의지(意志)와 욕망(慾望)의 3기능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도덕이 되기위하여서는 이성은 예지(睿智)로 의지는 용기(勇氣)로 욕망을 절제(節制)로 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 3원덕(原德)은 1개인으로서는 실현하기가 곤란하므로 사회적으로 예지가 있는 자는 치자(治者)계급이 되고 용기가 있는 자는 군인계급이 되고 절제가 있는 자는 서민(庶民)계급이 되어 사회적으로 통제하여야만 3원덕을 조화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그러한 이상사회를 국가라고 하고 진선미의 3원덕이 조화된 상태를 정의(正義)라고 했다.

공자가 인간심정의 보편성에 착안하여 이상인으로서의 성인(聖人)을 구상한데 대하여 플라톤이 인간심성의 개별성에 착안하여 진선미가 한인간안에 구비된 이상인인 성인보다는 진선미가 사회적으로 구비된 국가를 구상하고 성인보다 정의를 중시한 것은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자가 인간의 보편성에 착안한 것은 농경사회에서 별다른 개성의 발달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플라톤」이 개인의 개별성에 착안한 것은 상업사회에서 각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인인 각자(覺者) 즉 깨달은 사람도 진선미를 갖춘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불법승(佛法僧)을 3보(寶)라고 하는데 「불」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이겨내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완성된 경지요 「법」은 곧 진리요 「승」은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를 구하여 용맹정진하는 착한 사람이니 불법승은 곧 진선미다.

도교의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에 「자비스럽고(慈) 검소하고(儉) 감히 천하에 앞서가지 않는 것(不敢爲天下先) 즉 겸양(謙讓)을 3보(寶)라고 하였는데 불교의 3보나 진선미와 비슷하다. 자비스러움은 아름다운 감정이요 검소한 것은 착한 의지요 겸양은 지혜를 말한다.

기독교에서 신망애(信望愛)를 강조하는데 신앙(信仰)은 진리 또는 진리의 상증이 되는 신을 믿는 것이요 희망(希望)은 장래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말

하는 것이요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므로 신망애는 곧 진선미와 다름이 없다.

동학의 최수운은 성경신(誠敬信)을 역설하고 강증산도 선경신을 강조하는데 이 성경신도 진선미와 다름이 없다. 성(誠)은 정성(精誠)이나 성실(誠實)의 뜻인데 거짓이 없는 진리의 상태다. 성(誠)자는 말(言)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成)은 참이요 진리이지만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는 자연의 진리 그대로이며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자연의 진리를 벗어나 사람이 억지로 만든 허위(虛僞)이다. 그러므로 허위의 위(僞)자는 사람(人)이 억지로 만들었다(爲)는 뜻이요 중용(中庸)이라는 책에 「정성은 곧 하늘의 길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고 하였는데 정성은 곧 진리 그 자체요 정성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정성 즉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이다.

성경신 중의 경(敬) 즉 공경이나 경건(敬虔)은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감정의 극치를 말한다. 사랑(愛)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공경속에는 사랑도 물론 들어있지만 사랑을 한단계 넘어 우러러보는 엄숙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평면적으로 아름다운 감정이나 공경이나 경건은 입체적으로 아름다운 감정이다. 사랑만 있고 공경이 없으면 그 사랑이 식기 쉽지만 공경은 사랑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경에 근거하는 사랑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

성경신의 신은 굳은 의지를 의미한다. 신(信)에는 진리나 진리의 상징에 대한 신앙(信仰)의 뜻과 인간끼리의 믿음을 말하는 신뢰(信賴)와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맡고 나가는 신념(信念)의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의 신앙의 뜻보다 신뢰나 신념의 뜻이 강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성(誠)이라는 것은 진리나 진리의 상징인 신에 대한 신앙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도 결국은 진선미를 갖춘 사람이다. 신선이 된다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진선미를 갖춘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세계에서 진선미를 갖추면 전인이나 성인이 되지만 현실을 초월하면서 진선미를 갖추면 곧 신선이 된다. 생전에 현실적으로 진선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신선이 될 수 없다. 불노장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선이야말로 진선미의 보편적 표현자(表現者)라고 할 수 있다.

IV. 이상사회의 여러 형태

1. 동양의 이상사회상

(1) 대동(大同)사회

예기상예운(禮記上禮運) 제9에서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天下爲公) 어진 사람을 가려서 믿음을 사고 화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그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오직 그 자녀만을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늙은 이는 끝을 잘 마치고 젊은 사람은 잘쓰고 어린 사람은 잘 자라게 하고 과부나 홀아비가 되었거나 병이 든 사람은 모두 잘 보살펴주고 남자는 직업(分)이 있고 여자는 돌아가는 곳이 있으며 재물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꼭 자기가 가져야할 필요가 없으며 권력은 그 몸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꼭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략이 없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도적이나 역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밖에 나가도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를 대동(大同)이라 한다. 이제 대도는 이미 없어져서 천하가 자기 집만을 생각한다. 각각 그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고 각각 그 자녀만을 그 자녀로 생각하고 재물과 권력은 자기를 위할 뿐이다. 훌륭한 사람(大人)은 세상일을 예(禮)로 다스리고 성곽(城郭)과 도랑과 못(溝池)를 만들어 튼튼히하고 예의(禮義)로서 기강을 삼고 그리하여 군신(君臣)을 바로하고 부자(父子)를 돈독하게 하고 형제를 화목하게 하고 부부(夫婦)를 평화롭게 하고 제도(制度)를 만들고 논밭과 마을을 만들고 용기와 지혜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공(功)을 자기를 위하여 한다. 그런 까닭에 모략이 여기서 생기고 또 군대가 여기서 일어난다. 우탕 문무 성왕 주공(禹 湯 文 武 成王 周公)은 이런 일을 잘한 사람들이다. 이 육군자(六君子)는 모두 예(禮)를 삼가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그런 까닭에 그 의(義)를 들어내고 그 신(信)을 생각하고 잘못이 있는 자는 들어내서 관대하게 형벌을 주고 검양할 것을 가르쳐서 백성에게 가야할 길(常)을 가르킨다. 만약 이와같이 하지 않는 자는 세력이 있어도 떠나야 하고 백성들(衆)이 재앙으로 삼는다. 이것을 소강(小康)이라고 한다.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亂賊 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今大道 既隱 天下 爲家 各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 爲己 大人 世及以爲禮 城郭溝池以爲固 禮義以爲經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胞兄弟 以和夫婦 以設制度 以立田里 以賢勇知 以功爲己 故謀用 是作 而兵由此起 禹湯文武成王周公 由此其選也 此六君子者 未有不謹於禮者也 以著其義 以考其信 著有過 形仁 講讓 示民有常也 如有不由此者 在執者去 衆以爲殃 是謂小康)

대동사회는 유교의 이상사회인데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사회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공동체(公)라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을 넘어서 민중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동사회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가족제도도 없고 권력기관도 없다. 천하의 재산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가져야할 필요도 없고 땅에 싸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중을 골고루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부모도 자기 부모처럼 섬기고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보살핀다. 공동체안에서는 착한 사람을 골라 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권력기관도 필요없고 권력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일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도가 이미 흐려져서 천하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게 되고 사유재산제도가 생기고 국가제도가 생겨서 그것을 공정하게 경영하는 성인(聖人)이 나타나서 겨우 편안함을 유지하는 소강사회라도 바라볼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대동사회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 있다고 볼수 있다.

(2)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 80장에 이런말이 있다.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있다. 어른(仲伯)의 그릇이 있어도 쓰지 않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기고 멀리 이사가지 않게 한다. 배와 가마가 있어도 이것을 타지 않고 무기와 군인이 있어도 이것을 버려놓 곳이 없고 사람들로하여금 다시 사내기줄(繩)을 파서 쓰게하고 그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그 입는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사는 곳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 풍속을 즐기고 이웃나라끼리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 소리

가 서로 들리며 백성은 죽을대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小國寡民 使有仲伯之器 不用 使民重死 而不遠徙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使民復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 隣國相望 鷄犬之聲 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

노자가 이상사회를 생각하는 소국과민사회는 자연스럽고 평화스럽게 사는 조그마한 자연공동체다. 그것은 농촌에서 자연 촌락을 이루고 천명을 즐기며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집단이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족한 것이요 멀리 나간다면지 또는 다른 곳을 쳐들어 갈 필요가 없다. 그 자연 촌락을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음으로 그것을 소국(小國)이라 했는데 그러한 소국들이 서로 자기처지에 만족하고 큰나라를 만들어 부국강병(富國強兵)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점에서 이 소국과민사상은 일종의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위(人爲)적인 것을 피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즉 무위(無爲)의 상태를 이상으로 삼는 도교사상에서 거대한 국가제도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노자의 이상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도화원경(桃花源境)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이렇게 적혀있다. 진(晉)의 태원(太原)중 무릉(武陵)사람이 고기를 낚으며 시내를 따라 들어가다가 길의 원근(遠近)을 잊어버리고 도화림(桃花林)을 만났다. 언덕을 끼고 수백보를 갔는데 그 가운데 잡수(雜樹)가 없고 향기(芳華)가 아름답고 낙영(落英)이 펄펄 날려 고기잡이가 심히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시 수십보를 가니 턱터이면서 토지가 평탄하고 집들이 단정하며 뽕나무와 대나무 같은 것이 있었다. 교통이 빈번하고 닭과 개소리가 들리고 그중에 왕래하는 농사짓는 법, 남녀의 옷이 모두 판 세상사람(外人) 같았다. 누른 수염이 늘어져 있고 기뻐하며 스스로 즐겼다. 고기잡이가 보고 크게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므로 자세하게 이에 대답했다. 그랬더니 맞아들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상을 차리고 닭을 죽여 음식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안했다. 스스로 말하기를

선조들이 진(秦)의 난리를 피해서 처자와 동네 사람을 데리고 이 절경(絶境)에 와서 다시 밖에 나가지 않아서 드디어 밖의 사람(外人)과 멀어졌다. 문기를 지금은 어떤 세상이나 하면서 한(漢)나라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위(魏)나라의 진(晉)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사람이 자세하게 말해주니 듣고서 다들 놀랐다. 다른 사람들도 각각 다시 끌고 그집에 데리고 가서 주식(酒食)을 내어 수일동안 머물다가 나왔다. 나오니까 그 배가 있어 돌아오는 길에 따라 여기저기에 표를 하여 두었다. 군태수(郡太守)가 곧 사람을 보내 따라가서 돌아올때에 표해놓은 곳을 찾아보았으나 드디어 헤메이다가 다시 길을 찾지 못했다. 남양(南陽)의 유자기(劉子驥)는 고상한 선비였다. 이를 듣고서 기쁘게 생각하고 친이 가고 싶어했으나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어 병들어 죽었다. 뒤에 다시 나루를 찾는 사람이 없다.

이상의 도화원기는 도연명이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 도화원기에 나타난 마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농촌사회다. 이 도화원기에 나오는 촌락은 경치가 매우 좋고 인심이 매우 착하며 모두 낙천적으로 평화스럽게 살고 있어 동양인들의 이상사회의 대표가 되어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은 무릉도원(武陵桃源) 또는 도원경(桃源境)이라 일컫르게 되었다.

도연명은 도가(道家)적이기 보다는 유가(儒家)에 속하는데 그의 도화원의 이상은 노자의 소국과민 사상과 흡사하다.

흔히 공자는 치세(治世)에 관심이 많고 노자는 은세(隱世)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대동사회사상에서 보듯이 공자의 이상도 무위자연에 있던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소강사회에서 치세하는 것에 열중한 것을 알수 있다. 논어(論語) 선진 제11(先進 第十一)에 보면 공자와 그 제자와의 대화가 나온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각 자기의 이상을 말하라고 했다. 자로(子路)는 천승지국(千乘之國)이 대국간에 끼어서 기근이 심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때에 자기는 3년만 정치하면 그 나라를 바로서게 할 수 있다고 정치적 야심을 말하고 염구(冉求)는 방육칠십(方六七十)의 작은 나라를 3년간 정치하면 백성을 만족시킬수 있다고 겸손스럽게 정치적 희망을 이야기 하였지마는 공자는 그들 보다도 모춘(慕春)에 어른(冠者) 5~6인 어린이(童子) 6~7인과 기(沂)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쏘이고 노래 읊으며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증석(曾皙)의 편을 든 것을 보아도 유가의 이상 사회도 제도가 구비된 국가보다도 자연스러운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의 대동사회나 도가의 소국과민사회나 도연명의 무릉도원사회는 인성의 선량함을 토대로 하고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을 이루는데서 이상사회가 실현된다고 생각한 것은 본래 동방사회의 성립기반이 자연적 농경사회인 까닭이다.

(4) 용화세계(龍華世界)

미륵보살하생경(彌勒菩薩下生經)에 이런 말이 있다. 오는 세상에 이 세계에 한나라가 있으니 계두성(鷄頭城)이라 부른다. 동서는 백20리요 남북은 70리이며 토지가 풍부하고 인민이 번성하며 도시가 서로 잇따라 있다. 그때에 이 「염부제」의 국토는 평탄하고 쪽 고르며 거울처럼 말숙하고 깨끗하며 곡식이 풍족하고 인민이 번성하며 온갖 보배가 흔하고 모든 부락이 잇달아서 닭의 소리가 서로 들린다. 그때에는 좋지 못한 과일나무는 다 말라 없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물건도 다 소멸되며 달고 향기로운 과일나무가 땅에 나타난다.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4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백80종류의 질병이 없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곧아서 다 한뜻과 같으며 서로 보면 기뻐하고 좋은 말을 주고 받으며 그말이 통일되어 차별이 없는 것이 마치 「울단월세계」와 같다.

그때에는 이세상의 인민이 다 골고루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대소변을 하려하면 땅이 저절로 열리고 일 마친뒤에는 다시 합치느니라.

그때에 이땅위에 자연생의 벼곡식물이 껌질도 없으며 매우 향기롭고 달며 먹으면 병고가 없다. 그리고 금이니 은이니 진주호박이니하는 보물이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거나 걷어가지 않는다. 그때의 인민들은 손에 이런 보배를 들고 서로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이따위 물건을 말미암아 서로 빼앗고 도둑질하다가 옥에 잡혀 가두게 하여 고통을 받았다는데 이제는 자갈들과 같이 여기어 사람들이 따로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교는 현세는 고해이므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기가 어렵고 사후에 영혼들

이 극락세계라는 이상세계에 갈수 있다고 설한다. 이는 기독교에서 현세는 죄악의 땅이므로 사후에 영혼이 천당이라는 이상사회에 갈수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가 대립하여 이현세기 천년왕국이라는 이상세계가 실현한다고하여 지상천국사상이 있는 것과 같이 불교에서도 석가입적후 56억 7천만년에 미륵불이 하강하여 이 지상에 용화세계라는 이상세계가 실현된다고 한다.

미륵불의 하강이라는 것은 특히 한국민에게 많이 신앙되는데 그것은 단군 설화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인의 천지인 일체사상·지상천국사상등이 강한데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2. 서양의 이상사회상

(1) 이상국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國家論)에서 이상사회로서의 이상국가(理想國家)를 구상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일종의 큰 인간으로 완전한 유기체(有機體)요 완전한 통합이라 하였다. 그는 인간을 심리적으로 이성(理性)과 의지(意志)와 욕망(慾望)의 3기능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도덕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은 예지(叡智)로 의지는 용기로 욕망은 절제(節制)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3원덕(原德)은 1개인으로서 실현하기가 곤란하므로 사후적으로 예지가 있는 자는 치자(治者)계급이 되고 용기가 있는 자는 군인계급이 되고 절제가 있는 것은 서민(庶民)계급이 된다고 하였다.

인간이 그 3원덕을 1개인으로서 실현시킬수 없으므로 사회에 있어서 치자계급과 군인계급과 서민계급의 3계급이 하나의 유기적 사회로 통제되면 1개인으로서 실현불가능한 3원덕이 조화되어 달성될 것이라하고 이 통제된 사회를 국가라하고 3원덕이 조화된 것을 정의(正義)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이 국가야말로 모든 도덕적 가치 즉 정의가 실현되는 기관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플라톤」에 있어서의 국가는 대규모의 인간 수양도장이요 심령 수양기관이요 유일의 이상사회이요 정의단체이다. 그의 이상사회

로서의 국가는 사유재산과 가족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서양인에게 하나의 좌표를 제시했다. 이는 마치 동양의 공자의 중용사상이 동양인의 이상인상의 지표가 된 것과 비슷하다. 동양인이 이상사회보다 이상인의 형성에 주력하고 서양인이 이상인보다 이상사회의 건설에 주력한 것은 각각 그 풍토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태양의 도읍

「캄파넬라」(Thomas Campanella, 1568 ~ 1639)는 중세의 신학(神學)만능사상에 반대하고 신학과 철학을 구별하여 인식에는 신앙과 지각(知覺)의 두 원천이 있는데 신앙에서 신학이 생기고 지각에서 철학이 발생한다 하였다.

그는 성서(聖書)는 쓰여진 경전(經典)이요 자연(自然)은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현실철학(現實哲學)이란 책을 내면서 태양(太陽)의 도읍(都邑)이라는 이상사회를 그렸다. 태양의 도읍에서는 한사람의 지배자인 태양이 있고 그 아래의 3인의 장관인 폰(힘) 신(知) 물(愛)에 의하여 지배되고 부인 어린이 주거 식사등은 공동이며 사유재산은 존재하지 않고 그 시민은 하루 4시간의 노동을 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플라톤」의 관념론적 철학의 바탕에서 너무 이상적으로 흐른 감이 있었는데 「캄파넬라」는 현실철학으로 이상을 현실에 접근시켰다.

(3)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80 ~ 1535)는 「유토피아」란 저서에서 영국의 민중의 무서운 운명을 대단히 사실적인 필치로 표현하면서 현실적인 사회적 제문제 사유재산폐지 노동의 조직 부인문제 인구과다의 문제등을 제기하면서 노동에 관한 권리와 6시간제가 정당하다고 하였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서양인들의 이상사회상을 완성시켰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사상이 출현한 이래 유토피아는 이상사회의 대명사가 되었다. 마치 동양에서 도연명의 도와원기로 이상사회를 도원경(桃源境)이라

고 부르게 된 것같이 서양에서는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사상으로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부르게 되었다. 같은 이상사회상이지만 동양의도원경사상은 그저 자연상태를 예찬한 것 뿐이지마는 서양의 유토피아 사상은 사회구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서양인들의 이상사회 대망열이 동양인보다 훨씬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의 이상인과 이상사회

(1) 이상인으로서의 홍익인간

한국인의 원초적인 이상을 담은 단군설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사람을 이상인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사회를 이상사회로 생각하였는가를 엿볼 수가 있다.

천상에서 인간세계로 하강한 환웅(桓雄)은 그 아버지인 환인(桓因)으로부터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사명을 받았고 내려와서 신시(神市)라는 나라를 세울때에 재세이화(在世以化)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이상인은 홍익인간이요 우리 한국인의 이상사회는 이화세계(理化世界)다.

단군설화는 홍익인간의 구체적 덕목과 이화세계의 구체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홍익인간에는 홍익하는 개인도 의미하고 홍익된 사회도 의미한다. 홍익인이 사는 사회가 홍익사회요 홍익사회에 사는 사람이 홍익인이다.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개국이념이요 우리나라의교육이념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를 개국하신 분은 단군이니까 홍익인간은 단군의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군설화를 보면 홍익인간은 환인이 그 아들을 지상에 내려보낼 때 준 사명이므로 홍익인간은 단군의 이념을 넘고 환웅의 이념을 넘어서 하느님의 섭리라고 여겨진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천상과 천하 즉 지상은 엄격히 구별되어 천상은 천국이요 낙원이나 지상은 고해(苦海)요 죄악의 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천상과 천하를 구별하지 않고 천국은 하필 천상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상에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상

에 천국을 이룩하려면 하느님의 사명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뽑아 지상에 보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천상의 낙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아직도 황무지로 고생이 많은 지상으로 보내는데 대해서 하느님은 고민하고 계셨다. 아버지의 이와같은 뜻을 알아챈 둘째 아들(庶子) 환웅이 천하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살겠다고 하였으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깊은 효심(孝心)에 감격하였다. 그 감격한 모양이 바로 그 아버지의 태도로 잘 나타나 있다. 아버지는 우선 어디가 좋은 땅인가 하고 천하를 둘러보았고 어디가 홍익인간의 이상을 펼만한 곳인가를 가리고 또 그 아들이 지상에 내려가는 것은 그 아들의 뜻이라기 보다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신임장(信任狀)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었고 다시 3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을 팔려보내서 백두산 신단수(神壇樹)아래에 내려보내고 신시를 건설케 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았다는 부지자의(父知子意)인데 이 부지자의는 자지부의(子知父意)가 전제된다. 자지부의는 아들되는 환웅이 아버지되는 하느님의 홍익인간 즉 지상천국의 이상을 알아차렸고 그 아들의 「자지부의」의 심정을 아버지가 알아차려 「부지자의」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부자가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즉 지의(知意)는 우리 조상들이 받드는 하느님의 심정이요 우리 민족의 윤리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즉 지의(知意) 또는 이해(理解)의 정신을 사랑의 깊은 표현이다.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慈悲)로 표현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용서(容恕)로 표현한다.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는 자기도 상대방과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동병의식(同病意識)에 기인한다. 이는 유마경(維摩經)에서 병을 앓고 있는 유마거사와 문병한 문수(文殊)보살사이의 문답에 잘 나타나 있다. 문수보살이 「거사님의 병환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유마거사는 「대병은 모든 중생들이 병들어 앓고 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또 문수보살이 「그러면 거사님의 병환은 언제쯤 나아지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유마거사는 「모든 중생의 병이 다 낫으면 내 병도 나을것입니다」하였는데 이와같이 같은 병을 앓아서 그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자비다.

또 신약 요한복음 8장에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간음을 한 여인을 붙들고 예수에게 「이 여자는 간음을 하였는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게되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잠시 생각한 끝에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십시오」하였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슬슬 물러가 버렸다고 되어 있다.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분래 모두 죄인이라는 동죄(同罪)의식이 그 기반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동병의식에 기인한 자비와 기독교에서 동죄의식에 기인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조상들은 지의(知意) 알아주는 것 즉 이해(理解)를 중요시하였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상대방의 마음이 같다는 동심(同心)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동심의식에 기인한 이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흥익인간이요 이해의 정신위에 성립된 사회가 이화세계다.

사랑에는 여러형태가 있지만 그 근본이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것이다. 이해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정신이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하는 정신이다. 이 이해에서 자비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인의(仁義)도 나오고 충효(忠孝)도 나오고 해원도 나오고 상생도 나온다. 이 이해의 정신 「부지자의」의 정신에서 자기와 남이 공생공존하는 흥익인간이 될 수 있다.

(2) 이상사회로서의 이화세계

신시(神市)는 이상사회의 모형이다. 그곳에서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가 다스리는데 바람이나 비나 구름은 모두 생물을 자라게 하고 생물을 보살펴주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자비스러운 존재요 결코 무섭다던지 강제성을 띤 폭군이 아니다. 이화(理化)라는 것은 이치(理致)로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치는 자연법칙이다. 이치로 다스리는 것은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다스린다는 것인데 폭력이나 강권같은 부자연스러운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 선조들의 이상사회의 모습이 드러나있다.

또 신시에서 주관하는 일에 관해서 곡식을 주관하고(主穀)하고 생명을 주

관하고(主命) 병을 주관하고(主病) 형벌을 주관하고(主刑) 선악을 주관하고(主善惡) 인간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의 매우 진보된 국가관을 볼수가 있다.

고대국가는 국가의 권력성(權力性)을 강조하였고 고대국가에 이르러서는 그 민주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기능을 질서유지에 한정시켰다가 차차 국가의 기능을 교육, 경제등으로 확대시키고 최근에 와서야 보건이나 환경에까지 유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시의 기능은 주곡이라는 경제적 기능 주명이라는 환경적 기능 주병이라는 보건적 기능 주선악이라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질서유지기능으로서 주형을 들고 있는데 단순한 권력국가형도 아니요 또 단순한 질서유지 국가형도 아닌 매우 발달된 기능을 가진 국가를 그야말로 복지국가의 첨단을 보는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이상국가인 신시는 본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만든 국가인데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세운 신선의 나라다. 그 신선의 나라를 인간 단군이 인간의 나라로 만든 것이 곧 고조선이다.

우리 단국설화에는 하늘의 나라(桓國)와 지상의 나라 조선(朝鮮)이 있는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땅에서 올라간 신선들이 사는 신시(神市)라는 신선국이었는데 여기에는 천상의 영계(靈界)와 지상의 육계(肉界)가 혼연일치되어 불로장생하는 나라인데 이것이 곧 선경(仙境)이다.

V. 대순사상에서의 이상인(도통인)

-우주적 차원의 인간완성-

대순사상에서 이상인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도통(道通)인이다. 무엇이 도통인가? 수도(修道)를 통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의 지경에 이르러 인간이 개조되어 지상신선이 된 사람이다.

수도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주문을 외우는 공부(工夫)와 장소의 구애없이 주문을 외우는 수련(修鍊)과 기도(祈禱)가 있는데 성경신(誠敬信)을

다하여 상제와 합일되어 영통(靈通)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영통이 되면 천지인이 일체가 되어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사심(私心)인 욕심이 없어지고 인성의 본질인 양심(良心)만 남아서 마음을 속이지 않고 언덕을 삼가며 척을 짓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며 남을 잘 되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안심(安心) 안신(安身)하는 자리로 올라가 불로장생하게 된다. 바로 지상신선이 되는 것이다.

도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구제를 얻어 영혼적 구제를 무시한다던지 또는 영적구제를 얻어 육체적 구제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혼연일체되는 완전한 구제다. 도통한다는 것은 다른 지구적 차원에서의 인간완성이 아니라 지구를 훨씬 뛰어넘어 우주적 차원에서의 인간완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신령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 천지인 3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도통한 것이다. 우주의 진리를 깨닫음은 물론이요 우주의 진리 그것과 하나가 되어 우주의 진리를 움직이는 자리에 서는 것이 도통이다.

고래로 도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도통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증산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도통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경 교운 1장 33절에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점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성의 선령신이 한명씩 천상 공중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이제 만일 한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할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하였는데 이는 누구든지 자기 수도에 따라 도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전경 교운 1장 34절에는 「또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72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5백명을 통케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자는 다 원을 풀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하였고 또 전경 교운 1장 41절에는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누구든지 성심성의 수도

하면 설사 종교가 달라도 도통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전경 예시 45절에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하였는데 이는 장차 도통인이 대단히 많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전경 교법 2장 56에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더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이니라」하였고 전경 교법 3장 35절에는 「선천에는 모사재인(謀事在人)하고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고 하였으나 후천에는 모사재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하리라」하였는데 이 인존(人尊)사상은 도통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도통한다는 것은 인간이 완성되어 이상인이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인은 바로 신존(神尊)과 지존(地尊)을 넘어서는 인존(人尊)이다.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신인차별(神人差別)사상과 설사 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부터 된 신은 본래의 신과 동격일수는 없고 그저 하위신(下位神)에 머무를 뿐이라는 신존인비(神尊人卑)사상이 있는데 증산은 도통한 인간은 신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모든 신을 자유로 부릴수 있는 인존신비(人尊神卑)사상을 내세웠다. 이는 증산이 본래 우주의 최고신인 구천상제이신데 창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화신하였기 때문에 도통한 증산은 곧 상제요 그 상제는 인간의 몸으로 화신되었기 때문에 신존이 곧 인존이 된다. 전경 교운 1장 9절에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김으로 원시의 모든 신·성·불·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3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재우에게 경세대도를 계시 하였으며 제우가 능이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세상에 내려왔노라」하였으니 증산이 구천상제인 동시에 인간으로 신존을 겸한 인존이 되었다. 인간 증산이 도통을 하므로써 그에게 내재해 있던 상제의 본체를 드러내어 상제의 권한을 자유자재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제의 권한이라는 것은 전경 예시 16절에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놓은 것」이요 전경 공사 1장 3절에 「이제 신도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는 것」이다. 전경 공사 1장 2절에 「이것이 곧 후천개벽이다. 옛일을 이룸도 아니요 세운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가 처음으로 짓는 일이라」한 것을 보면 증산이 도통해서 상제의 본령을 되찾고 증산이 터놓은 도통의 방법에 따라 모든 사람도 다같이 상제의 본령을 되찾게 되어 인존시대를 이루도록 되어있다. 인존이라는 것은 천지인을 관통하여 우주적 차원에서 완성된 이상인이다.

VI. 대순사상에서의 이상사회(진경사회)

-우주적 차원의 사회구성-

대순사상에서 이상사회로 삼는 사회는 바로 진경(眞境)사회다. 이상적인 인간인 도통인이 육체와 영혼을 다 구제받고 천지인이 일체가 되어 우주의 진리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그 도통인이 사는 진경사회도 육체와 영혼이 혼연일체가 되고 천지인이 조화된 우주적 차원의 사회다. 지상사회에 연연하여 천상사회를 버리는 것도 아니요 천상사회에 구애되어 지상사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천상과 지상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현세에 살되 천상에 사는 것과 다름없고 천상에 살되 지상에 사는 것과 같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불로장생하여 행복을 누리는 우주적 사회다.

전경 예시 14절에 「만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 문명개화 삼천국, 도술운동 구만리」(萬國活計 南朝鮮, 淸風明月 金山寺, 文明開化 三千國 道術運通 九萬里)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남조선에서 만국을 구할수 있는 활계가 나오는데 그 시점을 금산사요 그 기운이 세계 삼천국에 미쳐서 세계가 모두 문명개화하게 되고 다시 그 기운이 우주 전체에 미쳐서 구만리나 되는 우주 전체 공간에 도술이 행해지고 새로운 운수가 통해서 먼저 조선이 평안하고 다음에 인류가 평안하며 나아가 우주전체가 도술운동하여 그야말로 도통천지가 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상사회를 대망했는데 그 이상사회는 종교인들이 구상하는 극락이나 천상과 같은 관념세계가 아니면 사회사상가들이 구상하는 자

유세계 평등세계 평화세계등의 사회체제다.

오늘날 이상사회의 프로그램은 대개 그나라 헌법에 나타나 있다. 이상적인 인간상이 진선미의 조화에 있는 것 같이 이상적인 사회상도 자유 평등 평화가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나에 관심이 쏠리어 있다. 인간성의보편성에 입각하여 이상인으로서의 완성인간이 진선미를 겸비하여야 하는데에는 거의 이론이 없으나 이상사회의 구상에 있어서는 생활양식의 다원성으로 각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많은 차이가 있다.

개인주의 생활양식에 젖은 서방인들이 자유세계를 이상사회로 하는데 비해 집단주의 생활양식에 익숙한 서아 동구 중동지대 이른바 중방사회에서 평등세계를 이상사회로 하고 있다. 서방적 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이루었고 중방지대의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와 불교의 서아적 형태인 라마교와 기독교의 동구적 형태인 그리스 정교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는 전제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로 흘렀다. 이슬람교가 중세기 이래 중방지대를 품미한 것 같이 현대에 와서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아 동구지방에 번진 것은 중동사회의 집단생활의 잔재이다. 러시아가 제국시대 강력한 전제주의를 썼는데 그리스정교 계통의 러시아정교가 그 전제주의의 뒷받침이었다. 동서의 중간에 위치한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었었는데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발붙일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이슬람제국 비잔틴제국 러시아제국등의 전제적 기반이 튼튼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기회 있을때마다 탈동방 또는 탈중방 정책을 써서 서방에 합류하고자 하는데 러시아 제국때의 「피터」대제와 공산주의 시대의 「고르바초프」가 그러하였다. 지금 러시아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공산주의적 사상이 아주 없어지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중방적 집단주의적 풍토때문일 것이다.

동방은 본래 자연주의적 가족주의적 평화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근대화되지 않아 혹은 서구식 민주주의 혹은 러시아적 공산주의등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세계가 전부 서구화 되어가는 와중에서 아직도 비서구적인 아시아적 가치에 머물러 있어 그로 인하여 서구와의 경쟁에 따라가지 못

하고 정체상태에 있다. 제2차대전후 아시아의 경제가 많이 발전되었는데 그것은 아시아적 가치인 유교가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아시아의 경제가 다시 침체하자 유교라는 아시아적 가치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동방은 그 풍토적 배경으로 완전한 서방화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은 동방의 자주성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동방적 자각은 있어야 하지만 전인류적 차원이나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왔다. 증산이 서양 범국 천계 탐에 내려왔다가 동방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는 동서양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최수운보다 강증산이 훨씬 너그럽게 대한 것을 알수 있다. 증산은 기독교를 동방에 전파한 이마두(Matteo Ricci)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증산이 이상사회로 생각한 것은 지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로 전우주적 문제였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의 이상세계인 진경사회는 지구적 규모의 자유 평등 평화가 조화된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 우주적 차원에서 만들어 상생하는 사회이다. 그 진경세계는 자유 평등 평화의 지구적 인류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나 그곳에는 만물이 상생하여 서로 환희를 느끼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법열경(法悅境)을 이루어 불교의 극락이나 기독교의 천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증산은 현실세계의 여러 모순을 지적하고 자유에 어긋나고 평등에 어긋나고 평화에 어긋나는 것을 많이 지적하여 그 시정을 바꿨다.

봉건시대의 적서의 차별, 남녀의 차별, 빈부의 차별등을 고쳐 평등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동학운동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찬성하면서도 그 폭력성을 경계하여 평화주의를 제고했다. 기타 민중들을 구속하는 폐습을 고쳐 민중을 해방시켰고 병자를 구해서 민중에게 자유를 돌려주었다. 그 증산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단순한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상도 포함되어 있다. 생전에 자유 평등 평화를 누리고 불로장생하여 신선이 되어 천상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수 있는 우주적 차원의 이상세계를 그는 구상했다. 그것이 바로 진경이요 선경이다. 그것은 동양의 도원경과 서양의 유토피아를 모두 포함하고 우주적 차원에서 영원이 상생하는 세계다. 증산은

그와같은 이상세계를 우선 남조선에서 실현하여 전지구 전우주에 확산시키고저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차원의 이상세계인 진경사회다.

증산의 이상사회구상은 동양의 가치에 근거를 두면서 널리 세계의 모든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증산은 우리나라가 허약하여 일본이나 서구의 침략 앞에 노출된 시기에 태어나서 먼저 원시반본(原始返本)사상으로 민족과 동양의전통을 찾고 다시 나아가 세계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띠워 사람의 안목을 민족에서 인류와 우주에까지 확산시켰다.

VII. 도통진경사상의 현대적 의의

1. 인간개조의 새로운 방도

우리가 잘 살려면 먼저 인간성을 개조하여야하나 또는 사회개혁을 먼저 하여야 하나 그것이 끊임없이 논란되었지마는 도통진경사상에 이르러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먼저 이루어 지기 보다는 동시에 이루어 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도통한 사람은 신선인데 그 신선이 사는 곳이 곧 진경이요 이상사회는 곧 진경인데 그 진경에 사는 사람이 바로 도통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통하기 위하여 수도를 하는데 그 수도는 도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수도 그자체가 진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도통과 진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통 가운데 진경이 있고 진경 가운데 도통이 있어 도통과 진경은 하나를 이룬다.

인간은 정신과 마음과 신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정신은 신(神)이요 마음은 기(氣)요 신체는 정(精)이다. 하필 인간뿐이 아니라 만물은 모두 정기신(精氣神)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도가에서 온 사상이나 참고될 것이 많다.

정기신의 근본은 기(氣)다. 기가 정화되면 신이 되고 기가 뭉치면 신체가 된다.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생물도 진화해 왔으며 인간도 진화해 왔다. 우주는 천지도수(天地道數)에 의하여 진화되고 생물은 적자생존(適者

生存)의 원리에 의하여 진화되어 있는데 인간도 생물이므로 적자생존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만 동물로서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神)이나 천주(天主)나 상제(上帝)나 하느님과 같은 절대자를 지향하는 진화가 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다를 것이다. 절대자는 인간성의 진선미와 성(聖)을 이룩한 상태로 그것은 곧 인존(人尊)이 되는 동시에 천존(天尊)과 지존(地尊)을 갖추어 우주에서 유일한 최고 존재다. 그것은 기의 수련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화하면 도통하여 하늘이 되고 그 마음이 퇴화하면 타락하여 동물적 본능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도통하고자 하는 마음은 곧 하느님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전경 교운 1장 66절 현무경(玄武經)에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의 신체가 마음에 의존한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이라고 하였다.

마음이란 천지우주의 중앙이요 인간의 중심인데 그 마음은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기(氣)다. 마음의 정신적인 면이 향상되면 인간은 신의 위치에 다다를 수가 있고 마음의 신체적인 면이 발달되면 동물로 타락하기 쉽다. 정신과 신체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데 이 수련의 근본이 있고 도통의 요령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간의 마음이 정신과 육체 즉 물질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면만 강조하거나 또는 인간의 물질적인 면만 강조하여 그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수련을 하여서 도통하기가 어려웠다. 인간이 도통하여 신선이 되면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성(神性)이 계발되어 인존이 되는 동시에 그 인존은 인간을 초월하여 객관화되어 우주에 실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존으로서의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이 거룩해짐과 동시에 천지우주도 함께 거룩해져서 인간의 마음의 신성과 우주의 신성이 합일되어 거기에 천지인 일체의 진경을 이른다.

지금까지 하느님이나 상제나 신명을 찾는데 혹은 초월적으로 그것을 밖에서 찾고자하여 타력적으로 기도하는 방법과 또는 그것을 내재적으로 안에서 찾고자하여 명상(冥想)이나 참선(參禪)이나 정좌(靜坐) 같은데서 구했으나 완전한 방법은 내재적인 명상이나 초월적인 기도를 함께 써서 절대자를 자기

의 마음속에서도 찾고 자기 밖에서도 찾을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자나 하느님이나 신명은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요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이기 때문이다.

도통하면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동시에 그것이 밖으로도 작용한다. 증산이 도통한 뒤에 스스로 상제가 되어서 상제의 권능을 행하였지마는 증산이 마련한 도통의 길로 누구든지 상제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도통을 하면 상제가 되어 그점에 있어서는 증산과 도인이 같다 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어도 좀처럼 도통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증산의 가르친 수련법에 따르면 도통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증산과 도인은 한번 도통하면 같은 상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산의 스승으로서의 가치는 높이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통하기 전에는 증산은 상제로서 받들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도통한 연후에 같이 상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산의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잊어져서는 아니된다.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상인과 이상사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자력적인 수련과 초월적인 타력적인 수련이 함께 이루어 져야만 하는데 이것이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도통수련이다. 도통수련은 다만 도통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련 그 자체가 도통중에 있으며 마음의 깊은 곳과 천지의 높은 곳이 일체가 되도록 종합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특색이다.

오늘날 인간개조를 많이 부르짖지마는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도통사상은 종합적인 방법으로 도통을 할수 있는 수련방법을 마련하여 오늘날의 인간개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통수련으로서 증산이 여러 가지 주문(呪文)을 가르쳤는데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과 구천의 높은 곳에 있는 하느님을 합일시킬수 있도록 호흡이 잘 조절되어 있는 진리의 표상이다.

2. 사회개혁의 새로운 방향

이상사회와 이상인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순사상이 제시하는 이

상사회인 진경은 곧 도통인이 사는 사회다. 도통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진경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어느 하나의 방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이 다같이 동원되고 모든사회의 장점이 모두 구비되는 포괄적 방향이 필요하다. 이상인이 진선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사회도 자유 평등 평화의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전경 공사 3장 5절에 「지기가 통일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서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였고 전경 교법 3장 23절에는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걸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할지니라」 하였고 전경 예시 13절에는 「선천에서는 관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관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 하였다.

진경 즉 후천 선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구상한 이상사회의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사회다. 지금까지의 이상사회는 혹은 사후의 영혼세계를 그리거나 또는 생전에 있어서의 일방에 치우친 사회의 이상사회를 생각했다. 불교의 극락이나 기독교의 천당이 이상사회임에 틀림없지만 종교가 다름에 따라 다른 종교에서 인정하는 사후의 이상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수도 있다. 또 현세에서 이상사회를 구상한다 할지라도 우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사회를 이상사회로 만들려는 노력은 있지만 자기가 사는 곳과 좀 떨어져 있는 곳까지는 생각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공동체의 이상사회 나아가서는 지역공동체나 직업공동체의 이상사회 더 나아가서는 민족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의 이상사회구상은 활발하지만 인류공동체나 지구공동체의 이상사회 구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런데 증산 사상에 있어서는 지구공동체를 뛰어 넘어 우주공동체의 이상사회를 구상하

고 있는데 그 넓은 포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혹 말하기를 지구공동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금에 우주공동체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도 하겠지마는 진정한 지구공동체를 이룩하려면 우주 공동체적 시각에서 보아야만 실현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의 이상사회는 진경이요 선경인데 그것은 천지인이 조화된 세계다. 신명계와 인간계와 물질계가 어울어진 세계요 기독교나 불교나 회교의 어느 신자라도 거부감이 없는 사회요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평등과 협동체의 평화가 함께 있는 사회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종교가 지배하는 독선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상생하여 서로 협동하는 세계요 그것은 어느 하나의 이념만이 배타적으로 군림하는 세계가 아니요 모든 이념이 상생하여 서로 장점을 살리고 결점을 보완하는 세계다. 여기서는 각 지방의 문명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문명이 다르므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문명으로 보충하여 서로가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협동하고 상생하는 세계다.

후천선경은 사람이 살아서 신이 되는 세계요 사람으로서 의식주의 걱정이 없는 세계요 원한은 없고 서로가 사랑하는 세계요 전인류가 형제가 되고 전우주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세계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상사회를 그려왔지마는 완전한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주관에 의해서만 이상사회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후천선경은 자기주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일체의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들끼리는 물론이요 모든 신명 모든 생물 모든 물질과 상생하는 세상이다. 거기에는 원한이 없고 자비와 사랑만이 있고 거기에는 번민은 없고 환희와 법열이 있을 뿐이다. 도통하여 진경에 들어가면 진실로 가장 포괄적인 우주적 차원에서 행복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